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행 인: 총무원장 김 덕 환
 • 편집 주: 부총무원장 박 신 규
 • 발행 처: 수운교본부
 • 발행 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지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간 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 화 / 팩 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 쇄 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 페 이 지: <http://www.suwoongyo.or.kr>

봉령각 아미타불 개금불사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김 덕환 총무원장과 각 지부장을 비롯한 많은 교인과 임직원들이 추운날씨임에도 동참하여 봉령각에서 아미타불상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법회를 봉행하였다.

아미타 부처님은 수운강생 116년(1937) 정축년 4월에 일본 경도에 있는 동본원사에서 목조입상의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여 수운교로 이운(移運)하여 오셨다. 그리고 동년(정축년) 5월 15일 아미타 부처님을 도솔천에 봉안하시고 입불식을 봉행하였다.

이때 전국에서 10만 명의 많은 분들이 입불식에 동참하였다.

아미타 부처님은 광복 후에 잠시 법회당에 모셔졌다가 이곳 봉령각으로 이운(移運)하여 모셨다. 그리고 192(2013)년 계사년에는 봉령각 문화재 보수공사로

인하여 법회당으로 잠시 이운하여 모셨다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94(2015)년 을미년 11월 23일 봉령각으로 다시 이운하여 모셨다.

그 후 뜻있는 교인들이 봉령각 건물은 깨끗이 단장을 하였으니 아미타 부처님께도 새 옷을 입혀드리자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에 익명의 교인으로 부터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위하여 써달라는 뜻과 함께 칠백만원을 희사하였다. 이와같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이루고자 무량수불이시며 무량광불이신 봉령각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36일간의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마치고 점안법회를 봉행하기에 이르렀다.

양원홍 제주도 감무원장은 설법을 통해 “개금불사는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개금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무량한 지혜를 얻어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 이루실 것”이라고 설법을 하였다.



임직원 정기총회



1월 26일 오후 1시 수운교 교헌 제61조에 의한 임직원 정기총회가 수운교 본부 법회당에서 있었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황보고를 통해 “198년도 실천덕목(슬로건)으로 성경신(誠敬信)으로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하자”로 정하였으며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수련수도(기도) 정진을 위해 교리 및 주문봉송 예불의식에 적극 참여하자, 둘째 환고향(還故鄉)운동 전개로 기도 및 행사참여를 유도하자 셋째 청정용호도량 환경조성으로 교인들은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기도로량, 임직원들은 존경받는 성직자의 대우로 머물고 싶은 기도로량으로 조성하자. 넷째 탄강 200년, 개교 100년 기념법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등으로 교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김상조 감리원장이 19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였다. 198년도 예산안은 지난 법사회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원 3명의 법사인준(안)은 원안대로 대호 이계찬, 문호 정재득, 병호 이찬구 3명을 법사로 인준하였다.

이 하자”로 정하였으며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수련수도(기도) 정진을 위해 교리 및 주문봉송 예불의식에 적극 참여하자, 둘째 환고향(還故鄉)운동 전개로 기도 및 행사참여를 유도하자 셋째 청정용호도량 환경조성으로 교인들은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기도로량, 임직원들은 존경받는 성직자의 대우로 머물고 싶은 기도로량으로 조성하자. 넷째 탄강 200년, 개교 100년 기념법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등으로 교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김상조 감리원장이 19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였다. 198년도 예산안은 지난 법사회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원 3명의 법사인준(안)은 원안대로 대호 이계찬, 문호 정재득, 병호 이찬구 3명을 법사로 인준하였다.

인등기도 입재

지난 2월 14일 봉령각에서 인등입재기도를 봉행하였다. 인등기도는 아미타불님과 성덕군 선생님 순덕군 선생님 양위선생님 곁에 1200여 명이 인등을 밝혀 기해년에 불천사(佛天師)님의 큰 광명과 무량한 자비심으로 전생금생의 죄 업장이 소멸되고 무량한 대 지혜를 얻어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져 가내평안과 수명복록을 기원하는 기도다.



인등기도는 밝고 깨달음의 세계로 우매한 중생들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매년 음력으로 정월 10일 10시에 수운교 봉령각에서 봉행한다.

수운교 경전 용담유사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승지(勝地)에 살아보세 명기(明氣)는 필유명산하(必有名山河)라 팔도강산(八道江山) 다 던지고 금강산(金剛山) 찾아들어 용세좌향(龍勢座向) 가려내어”라고 하였듯이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땅의 신령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명기(明氣)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금명산하 봉령각은 옛날부터 기도처로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그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새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수운교 임직원 일동-

신년사



총무원장 윤호 김덕환 합장

교인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삼가 세배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인여러분께서 성·경·신을 다하여 어려운 교단을 위해 헌신 봉공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금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신 가운데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미진한 부분도 많았으나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신행정진하여 삼대원의 속덕성취와 우리의 속원 사업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봅시다.

특히 금년에는 3.1 독립운동과 임시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선대의 많은 교인들은 보국안민의

대원을 성취코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공적을 발굴하여 포상청원과 아울러 후대에서라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의 모든 건물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의 품격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품격있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여러분은 이에 걸 맞는 교인의 품격을 갖추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받드는 성숙한 교인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됩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연연해 하는 것이 과거이고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 현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을 살피고 희생해야 내일의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강녕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드리오며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교인 여러분, 그리고 교인 가족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교인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해마다 새해 아침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했는지 묻게 되고, 또 교인은 교인대로 그 소임을 다했는지 되물게 됩니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교단은 조금씩 발전하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본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한분 한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부는 교역자들의 힘만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교인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교인여러분도 기도와 정성으로 정진해 주신다면 우리 수운교는 큰 변화 속에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원 법사 여러분!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원에서는 본부의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천사님 탄강 200주년과 개교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양대 기념식에 우리 수운교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전 말씀에 “봄 바람이 불어 밤이 지나가니 1만 나무가 일시에 알아 차리리라.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리라. 삼백육십 일에 삼백육십 송이의 꽃이 피리라”(탄도유심급)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꽃 한 송이 마다 중요하듯이 우리 교인 한 사람 마다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경 신(誠敬信)의 세 글자는 우리 모든 신앙과 활동의 기본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의 중심은 정성이며, 도(道)의 주체는 공경이라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인여러분!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운이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경전 말씀에 “산하대운(山河大運)이 진귀차도(盡歸此道)”(탄도유심급)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온다는 뜻이다. 큰 운수는 개벽의 큰 운수일 것이며, 이 도는 물론 우리 동학의 무극대도일 것이며, 수운교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천지의 큰 운수가 돌아오는 기해년 새해에 성 경 신으로 삼대원 성취를 앞당기는데 노력합시다. 교인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불천사님께 거듭 축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사원장 공호자 김석주 합장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과 꿈을 안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사람을 대할 때 “항어일심(恒於一心)이 시지여천(侍之如天)하며 애지여천(愛之如天)하고 경념시천(敬念侍天)하되 위인원발(爲人願發)하면 천화지화인화(天和地和人和)에 만물(萬物)이 화의(和矣)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며 사랑하기를 하늘 같이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남을 위하여 발원하면 하늘도 화하고 땅도 화하고 사람도 화하여 만물이 화목할 것이라 했습니다. 금년은 감리원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함께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정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량정화와 임직원 화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인 여러분! 금년도(198)부터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실천하여 세계(世界) 일가동락(一家同樂)하는 도덕세계의 지상천국 건설에 동참합시다. 이를 위해 주문봉송과 예불의식에 적극 동참하시여 불천사(佛天師)의 법문을 익히고 언행(言行)과 품행(品行)이 타의 모범이 되는 수운교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義務)인 1)주문봉송 2)청수봉전 3)기도봉행 4)법일 참배 5)공덕미 헌납의 오관(다섯가지 정성)과 1)살생하지 말며 2)음해하지 말며 3)도적질하지 말며 4)간음하지 말며 5)사사로운 싸움하지 말라는 오계(다섯가지 계율)를 수행하는 수운교인이 됩시다. 존경하는 교인 동덕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윤리 그리고 의무를 잘 이행합시다.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모든 임직원과 교인들이 화합하여 교인들은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량이 되도록 하고, 임직원들은 머물고 싶은 도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 불천사(佛天師)님의 가호지 원력으로 가내평안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이루시기를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리원장 윤호 김상조 합장

신년사



이사장 인호 정기종 합장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황금돼지해에 수운천사님의 정기를 받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해년 올해에는 남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생활화합시다. 이런 마음이 곧 사람을 하늘님 같이 섬기는 사인여천이 아니겠습니까?

유교에서 천성을 길러 자라게 함과 불교에서 천성의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게 함과 선교에서 천성을 단련하게 함과 기독교에서 천성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이치는 수운천사님의 유불선합일의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삼대원을 성취하고 만화귀일 하는 본성의 무극 대도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덕여러분!

올해부터 “수운천사 탄강 200년, 개교 100년 기념법회”를 뜻 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운교의 교리를 널리 알리며 수운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모아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은 오관 즉 주문·청수·기도·법일·기공덕미 헌납 오관을 정성껏 실행하여 교인의 도리를 다 합시다.

경전에 이르기를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 무엇하며 심학(心學)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不忘記意) 하였어라”하였습니다.

즉 본주문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언제나 마음에 담고 기도 수련 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동덕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 모두 편안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농학박사 강동근

2019년 2월 15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전문연구위원 강동근 동덕이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강 박사는 수운교 본부 도솔천에서 다년간 봉직하셨던 은호자 강유진 봉령군대인의 큰손자이며 강정희 청정봉사단 재무국장인 고모님과 작은 아버지님 등 현재 수운교 봉개지부에서 선조님들의 뜻을 받들어 신앙생활을 하고있는 봉도(奉道)인이다.

정월기도

지난 2월 11일(음 정월 7일) 시작하여 2월 17일 칠일간의 정월기도를 714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김승천 정위사는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를 감응하시고 하늘님은 감응하심을 따라 변화를 측량할 수 없으므로 있는 것(有)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無)을 있게도 하사 정한 운수를 바꾸지 아니하시며 성하고 쇠하는 것을 맡아 주장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는 천사님의 가르침대로 일심동령으로 부처님과 하늘님께 친근하면 도성덕립도 어렵지 않고 복록받기도 어렵지 않으며 재앙을 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운교인답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 천사님의 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의 험담이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정화하여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언행과 품행을 바르게 합시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학문, 모든 기술, 모든 영광된 일들이 만들어지며 누구나 무한정 평화롭고 무한정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법하였다.



천호자 김승천 정위사

이어서 온황부, 수기부, 차량과 선박 부적을 배부하고 참회를 맞으며 정월기도를 마쳤다.

‘종교지도자 신년 간담회’



한국종교협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종단장, 종교

학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2019 종교지도자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관음종, 한국 이슬람교, 국제기독교선교연합회, 수운교, 천도교, 대종교 등 10여 개 종단의 종교지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종협 이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옛말에 마음이 가는 데 몸이 간다고 한다. 남북통일의 문제도 마음인 종교가 먼저 행동해야 몸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가 뒷받침하며 따라온다”며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앞장서 민족이 하나 되어 만세를 부르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제 종교인이 하나 되어 신통일 한국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해야 한다”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수운교 오창윤 교무부장은 “수운교 경전에 천생만민 도우생(天生萬民 道又生)하니 각유기상오부지(各有氣象吾不知)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道理)도 같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기상이 각각 다르다 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개인과 종교의 벽을 넘어 온 인류가 일가 동락하는 도덕 세계의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지” 고 새해인사를 하였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



삼호자 이명주

좋은 인연과 좋은 만남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인연 어떤 만남을 좋은 인연과 만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지 선후배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장했는데 어떤 만남이 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와 힘들 때 어깨를 다독여 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가르쳐 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끔 가르쳐 주고 또 예의를 갖추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살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지도 가르쳐주고, 살아가는데 소중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가르쳐 준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끼면서 다시 생각을 해 봅니다.

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인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

우리들의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합시다.

경 전

[東經大全]

立春詩(입춘시)

대도정여천 춘일가기다
大道正如天 春日佳期多 (새봄을 맞이한 시)

대도는 바르기가 하늘과 같고 봄날에 아름다운 기약이 많도다.

無題(무제)

피백구혜오백학 비거비래탄불여
彼白鷗兮吾白鶴 飛去飛來歎不如
제성강회속미분 연시황금매골초
齊城絳繪束尾奔 燕市黃金買骨初

저 갈매기여 내 백학이로다.
날아가고 날아가며 탄식함이 같지 않도다.
제나라 성에서는 붉은 무지개 그리며 꼬리 감춰 달아나고,
연나라 저자에서는 황금으로 뼈골을 사니 처음이로구나.

남경풍우호천림 북화운연용일수
南驚風雨虎千林 北化雲烟龍一水
보국안민현사재 학시명혜가만수
輔國安民賢士在 鶴是鳴兮歌萬壽

남쪽은 바람 비도 놀라는 범이 천되는 수풀이요,
북쪽은 구름과 연기가 화하여 용이 한물이로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어진 선비가 있으니,
학이 이에 읊이여, 만수를 노래하는구나.

십월우십일 어양단두미 일사여옥립 증구하난방
十月又十日 魚羊斷頭尾 一士如玉立 衆口何難防
태백산공사십구 불의사월사월래
太白山工四十九 不意四月四月來
금사옥사우옥사 원통봉하도통통 [중]
金士玉士又玉士 圓通峰下道通通 [終]

十月과 十일에 고기와 양의 머리와 꼬리가 끊어지는구나.
한 선비가 옥같이 섰으니 사람들 입을 어찌 막겠느냐?
태백산 공부 사십구일이로다.
뜻하지 않은 사월에 사월이 오네.
금 선비 옥 선비에 또 옥 선비로다.
원통봉 아래에서 도를 통하고 통하네. [끝]

- * 【주】 수운 천사님의 생애를 약술하면
- 을묘천서(乙卯天書): 을묘년(1855) 봄 2월에 나옹불사를 통해 불법, 선법, 유법의 삼합대도 천서를 받음
- 경신득도(庚申得道): 경신년(1860) 4월 초5일에 하늘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전수받음(이름하여 동학이요 천도라함)
- 신유포덕(辛酉布德): 경신득도 후 1년여동안 같고 다듬은 경전으로 신유년(1861) 6월부터 포덕하기 시작함
- 갑자수난(甲子受難): 계해년(1863) 12월 10일부터 갑자년

(1864) 3월 10일까지 있었던 조정의 탄압에도 굽히지 않고 온갖 고난을 이겨냄

[훈법대전]

훈법대전 서 (訓法大典 序)

1 상고천지사시성쇠지수하고 하찰제왕흥망지리하니
上考天地四時盛衰之數하고 下察帝王興亡之理하니
막언자ㅣ造化지적이오 난평자ㅣ정법지행이니
莫言者ㅣ造化之跡이오 難評者ㅣ政法之行이니
시역 천주지소이오 명인정지소변이라
是亦 天主之所이오 命人情之所變이라

위로 천지사시 성하고 쇠하는 수를 상고하고,
아래로 제왕의 흥하고 망하는 이치를 살피니 말하지 못할 것이 조화의 자취요,
평론키 어려움이 정법의 행함이니 또한 천주의 명하신 바요 인정의 변한 바라.

2 계고상왕오제 도통상전지정하고 추론열국
稽考三王五帝 道統常傳之政하고 推論列國
패후지사하니 인이행지하고
霸侯之事하니 仁而行之하고

의이립지하며 지이교지하고 예이대지하여
義而立之하며 智而教之하고 禮而待之하여
사기일부일부로 각수기업하여
使其一夫一婦로 各守其業하여

삼강을 입지하며 오륜을 명지하니 법도ㅣ
三綱을 立之하며 五倫을 明之하니 法度ㅣ
차정하며 교화ㅣ 유행하여 효자ㅣ 다어향여하고
次定하며 教化ㅣ 流行하여 孝子ㅣ 多於薊閣하고
충신이 열어조정하니 솔천하이귀우인선하여
忠臣이 列於朝廷하니 率天下而歸于仁善하여
무위이화는 시위삼왕오제지정이오 혹벽토지하며
無爲而化는 是爲三王五帝之政이오 或闢土地하며
혹심간과하여 동구척촌지지하고 서취일이지군하여
或尋干戈하여 東求尺寸之地하고 西取一二之郡하여
살기무고에 해급량민하니
殺其無辜에 害及良民하니

삼왕오제의 도통 상전에 정사를 상고하고 열국패후의 일을 의논하니 어진 것을 행하고 오른 것을 세우며 지혜로 가르쳐서 예로 대접하고 그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로 하여금 각각 그 업을 지키게 하여 삼강을 세우고 오륜을 밝히니 법도가 차례 정하고 교화가 흘러 행하여, 효자가 향여에 많고 충신이 조정에 버려서니 천하를 거느려서 어질고 착한데로 돌아가 하염없이 화하게 함은 이 삼왕오제에 정사요, 혹 토지를 열며 혹 간과를 찾아 동으로 척촌의 땅을 구하고 서로 一二의 고을을 취하여 그 허물없는 이를 죽이매 해가 어진 사람에 미치니,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애국지사 변승욱(邊承郁) 학선군대인

변승욱 지사는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면 외입암리에서 출생하였다. 서당의 훈장으로 후세교육에 힘쓰며 동학사상에 심취하여 삼대원 성취를 위하여 교화 활동에 성경신을 다하시던 중 1919년(기미년) 3월 2일 중화군 상원면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봉기하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여 시위를 주동하였다.

변승욱 지사께서는 시위군중과 함께 상원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는 등 일제의 공무를 마비시키고 다수의 외경에게 상해를 입혔다. 평양 경무부의 보병과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군중은 해산되고 일제의 검속에 긴급 체포 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그해 7월 31일 평양고등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그 후 친사님의 재위출세 소식을 접하고 탄동면(숯골) 금병도국으로 이주하여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삼대원 성취를 위해 성·경·신을 다 하시어 도위가 학선군대인에 이르렀다.

유족으로는 변왕식 씨 1명이 있으나 행방을 알 수 없고 언제 환원하였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며 묘지는 도솔천 서편 옛 친사님 묘소 아래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6.20 사업으로 인해 묘소의 유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하였으나 알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2006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고 훈장을 전수 받을 유가족을 찾고 있으나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현재 본부에서는 향사록에 등재되어 위패가 봉안되어 있어 고인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3.1혁명 100주년에 생각해보는 민족의 근원



봉령군 대인
병호자 이찬구 박사

1. 『삼국유사』의 원문 이찬구 박사의 해석

『三國遺事』(삼국유사) 「古朝鮮王儉朝鮮」(고조 선왕검조선)

魏書(위서)에 云(운) 乃往二千載(내왕이천재)에 有壇君王儉(유단군왕검)이 立都阿斯達(입도 아사달)하시고 開國號朝鮮(개국호조선)하시니 與高(堯)同時(여고[요]동시)나라.

▶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중국의 요와 같은 시대라 하였다.

古記(고기)에 云(운) 昔有桓國(석유환국)하니 庶子桓雄(서자환웅)이 數意天下(삭의천하)하야 貪求人世(탐구인세)어늘 父知子意(부지자의)하시고 下視三危太伯(하시삼위태백)하시니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일세 乃受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하야 遣往理之(견왕리지)하시니라.

▶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가 하늘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걱정하여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의 아버지(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시니 가히 천지와 인간이 하나된 이로운 세상(홍익인간)이 될 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지인을 상징한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雄(웅)이 率徒三千(솔도삼천)하사 降於太伯山頂(강어태백산정) 神壇樹下(신단수하)하시니 謂之神市(위지신시)오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시니라. 將風伯(장풍백)·雨師(우사)·雲師(운사) 而主穀(이주곡)·主命(주명)·主病(주병)·主刑(주형)·主善惡(주선악)하시고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하사 在世理化(재세리화)하시니라.

▶ 이에 환웅이 무리 3,000명(추장)을 거느리고 태백산(요하 유역)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또는 신불)라 이르고 다스리시니, 이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 우사, 운사의 세 신하와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을 맡은 다섯 신하를 거느리시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일일이 주관하시어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교화를 베풀었다.

時(시)에 有一熊一虎(유일웅일호)하야 同穴而居(동혈이거)러니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祈于神雄常(기우신웅상)]하야 願化爲人(원화위인)이어늘 時(시)에 神遺(신유)로 靈艾一炷(령애일주)와 蒜二十枚(산이십매)하시고 日(왈) 「爾輩食之(이배식지)하라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이면 便得人形(변득인형)이리라」 熊虎(웅호) 得而食之(득이식지)하고 屰三七日(기삼칠일)이러니 熊得女身(웅득여신)이나 虎不能屰(호불능기)하야 而不得人身(이부득인신)이라.

▶ 바로 이때 웅족(곰토템족)과 호족(범토템족)이 같은 굴(고을)에 살았는데,

신령한 웅상(부엉이새)나무 앞에서 사람(환웅과 닮은)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때 (웅이) 신의 유법으로 신령스러운 쑥 1타래와 마늘 20매를 내려 주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수련을 하라. 그리하면 문득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각기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7일(또는 21일) 동안을 삼가고 공경한 끝에 웅족에서는 본성을 회복하여 여자의 몸이 된 자를 얻었으나, 호족에서는 금기를 다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된 자를 얻지 못하였다.

熊女者(웅여자) 無與爲婚(무여위혼)이라 故(고)로 每於壇樹下(매어단수하)에 呪願有孕(주원유잉)이어늘 雄(웅)이 乃假化而婚之(내가화이혼지)하사 孕生子(잉생자)하시니 號曰壇君王儉(호왈단군왕검)이시니라.

▶ 웅족 여인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잠시 (새토템족에) 귀화시켜 혼인해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셨다.

*본문 중에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은 “祈于神雄常(기우신웅상)”으로 해석

2.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동안 단군신화(檀君神話)라는 말에 갇혀서 우리 조상을 허구(虛構)의 신화인물로만 배워왔다. 이렇게 단군을 신화로 만든 사람들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다. 해방 70여년이 넘었고, 3.1혁명 100주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일제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역사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매우 장구한 세월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천여년 전에 고조선(古朝鮮)을 세운 단군왕검이 있었고, 그보다 이른 시기인 지금으로부터 근 6000년 전에 신시(神市)를 세운 환웅천왕이 있었다. 고조선이 최초의 나라라면, 신시는 최초의 민족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환인은 환웅에게 세 가지 천부인(天符印)을 주며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에 있으면서 잘 다스리고, 만세의 자손들의 큰 모범이 될 하늘의 법도를 세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와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등 여덟 신하를 거느리고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여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재세이화(在世理化)하였다.

어느 날, 환웅은 도통을 이룬 웅족의 한 여인을 만났고, 이들 환웅족(조이족)과 웅족이 혼인으로 결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중에서 단군이 태어나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것이다. 환웅의 신시나 단군의 조선은 신화속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혈맥으로 근 6천년을 전승해온 우리의 조상이며, 그 조상들이 세운 나라였던 것이다.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제에 빼앗긴 우리역사의 진실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려 말에 일연(一然)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우리 한민족의 근원을 기록한 역사의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정

☘ 법사회의



지난 12월 23일 법사회의가 복지관에서 있었다. 이날 총무원에서 제출한 198년 예산안 중 인건비 인상분은 전액 삭감 동결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 해맞이 행사 및 화합의 한 마당



금병산 운수봉에서 박남형 신도회장 등 2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새해 새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염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하였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복지관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여 김승천 정위사의 집례로 산재기도를 봉행한 후 해맞이 행사를 하였다. 동참자들은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고 수명복록(壽命福祿)을 기원하며 기해년 뜻 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덕담을 나누며 해맞이 행사를 하였다.

1월 1일 신도회원 화합의 한마당 율놀이 대회가 복지관에서 있었다. 이날 박남형 신도회장은 금병산 운수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마치고 새해 교인들의 단합과 수운교 발전을 위한 다짐을 하고 율놀이를 하며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하였다.

☘ 인등 300일째기도 및 종공

지난해 12월 16일 인등 300일째기도를 법일과 함께 봉령각에서 많은 교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이날 오영순 정위사는 동경대전 논학문과 경념총화에 담겨있는 강령주와 본주문의 뜻을 설명하면서 “주문은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고로 비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기(至氣)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기가 푸르고 푸르러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일이 없는 지라 형용이 있는 듯하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되 보기는 어려운 것이니 이것은 혼원한 한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고 밝은 그 덕을 항상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않으면 지극한 지기로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까지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논학문과 경념총화에 담겨있는 주문(呪文)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생활화합시다”라고 설법하였다.

1월 15일(음 12.10) 10시 인등기도를 1,200여 분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한 해 동안 가내평안과 수명복록을 기원하고 이날 종공기도를 봉령각에서 봉행하였다.

☘ 산재기도



2월 10일 오후 3시 남녀교인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병산 산재단에서 산왕기도를 봉행하였다.

이날 산왕기도는 산왕대신께 기해년 한 해 가내 무사태평을 기원하였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산왕경을 봉송하며 동서남북 사방 팔방 가는 곳마다 좋은 일 만나며 일체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였다.

☘ 하반기 감사

지난 1월 17일과 18일 하반기 정기 감사를 본부 사무실에서 김상조 감리원장, 운영진 부원장, 김광석 감사부장, 지재현 심리부장 등 감사관들이 중단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를 마치고 수운교 임직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강평을 통해 교인 포덕에 힘써줄 것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안 사업을 과감히 실천하여 청정한 도량관리를 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며 심도 있는 강평을 하였다. 강평을 마치고 모든 임직원들은 중단 지도자임을 인식하여 언행과 품행을 항상 단정히 하여 모범을 보이자고 다짐하였다.

☘ 재단법인 이사회

1월 13일 11시 수운교재단법인 정기이사회를 수운교 본부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신적으로 봉직하고 계신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운교 발전을 위해 좀 더 분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내용은 197(2018)년 결산 심의와 198(2019)년 기해년 예산심의 그리고 탄강 200년 기념법회와 100년 개교기념법회 준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 수운교 금병봉사단 정기총회

2월 17일 수운교 금병봉사단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날 봉사단장에 정기백, 부단장에 김석기, 총무부장에 김옥현, 재무부장 조대연 등 임원 개선이 있었다.



☘ 입춘기도

2월 4일 법회당에서 300여 분이 동참한 가운데 입춘기도를 봉행하였다. 이날 입춘시간은 오전 12시 14분이다. 법회당 김

승천 정위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기해년 가내평안과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축원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은 입춘기도의 유래와 삼재부적에 대한 설법을 하였다.

☘ 부녀회 봉사활동



2월 14일 부녀회 총회가 복지관에서 있었다. 김은택 부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부녀회 활동에 봉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활동사항과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2월 11일부터 삼일절 향사위패봉안과 위령제 준비를 위한 부녀회원들의 손길이 바쁘다. 부녀회원들이 섬섬옥수로 반야용선에 장식할 꽃을 만들고 영가님들의 영의(靈衣)를 접고있다.



☘ 삼왕기도



기해년 세계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수운교 교인들의 무사태평하시고 뜻 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기 위해 2월 4일 오후 3시 법회당 장실에서 조왕기도를 봉행하였고, 2월 7일 오후 3시 장실에서 용왕기도를 봉행하였다.

2월 10일 오후 3시에는 금병산 산재단에서 산왕기도를 봉행하였다.

☘ 동지기도

12월 22일 도솔천, 봉령각, 법회당 등 삼단에서 새해 밝은 기운을 받기위해 불천사(佛天師)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날 많은 교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동지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액운은 사라지고 희망찬 새해의 새로운 기운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동지기도를 봉행하였다.

동지는 옛날부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로 작은 설이라고도 하였다. 동지는 한 해 24절기중 하나로서 일량(日量)이 생하는 날이다.

동정



2018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수상자 선정



수운교 청정봉사단
김옥산 단장

수운교 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이 자랑스러운 제주인상에 수상되었다. 이번 수상 상금 전액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일천여 사회봉사단체의 대표로 김옥산 수운교 청정봉사단 단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수운교 청정봉사단은 지난 2010년 7월 결성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면서 귀감을 사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묵묵히 도왔던 이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 수운교 청정봉사단의 창단 계기가 됐다. 창단 후 현재까지 5,122여 회, 84,754시간에 걸쳐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는 물론 재가 어르신 방문 청소, 반찬 나눔, 급식봉사, 효도잔치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효도잔치를 위한 비용을 일일차집을 운영하며 직접 마련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봉사와 각종 행사와 대회 도우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복지시설 등에 생필품은 물론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자활과 재활에도 힘을 보태왔다.

봉사단 창단 기념일인 매년 7월 18일에 맞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7명에게 1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11개소에 달하는 청소년 공부방을 조성하기도 했다.

문화의 다름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한마음 축제, 김장나눔, 떡국나눔, 전통문화체험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 운영비는 직접 마련한다. 1년에 김장김치 4000포기를 손수 담가 2000포기는 독거노인 윈스톱지원센터에 나눠주고, 나머지 2000포기는 직접 판매한 뒤 수익금으로 봉사 활동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물론 태풍 피해지역 복구활동, 탐라문화제 행사 도우미, 화재현장 청소, 항공기 결항에 따른 배식 및 음료봉사 활동 등 묵묵히 자원봉사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의 이 같은 활동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제주도지사 표창,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 등으로 인정받아 오고있다.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 청정봉사단에서는 수운강생 1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연인원 183명이 수운교 봉개지부에서 제9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배추 4천포기에 희망을 담아 시설 어르신 및 독거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 나눠드렸고, 12월 14일에는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 2018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한경숙 단원님이 제주시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12월 21일에는 제주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2018 자랑스런 제주인상 시상식에서 청정봉사단이 제주도 내



2,000여 개 봉사단체를 대표하여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12월 22일에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 장소에서 단원 20명이 불우 이웃을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했고, 매주 수요일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배달을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계·시·판

하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초하루,보름기도	매월 음 1일,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삼일절위령재일	양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
● 신장재일	음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남문)
● 본부옹왕기도	음 3월 3일		본부 부녀회
● 조왕재일	음 3월 29일	오후 3시	장 실
● 용왕재일	음 4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왕재일	음 4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교주탄강	음 4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음 4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백일기도	음 4월 8일	오전 10시	봉령각
● 단오합동제향제	음 5월 5일	오전 10시	공설묘지
● 칠석기도	음 7월 1일~7일	오후 5시	도솔천
● 백중위령재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법회당

공 · 기도비를 납부합니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강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쾌척성금

▶ 현금회사 • 100만원 이상 : 최영례 • 30만원 이상 : 정길호
• 10만원 이상 : 나동섭, 안상원, 나은지, 이규식

▶ 물품회사

• 김창범(넘버원농장), 대성건업(봉개), 오동구(홍로), 김성규(용흥), 김태운(부여), 강순애(화순), 이준택(한동), 김영호(안덕), 이장성, 양홍익(화순), 양설재(안덕), 장도훈(제주), 최춘자, 이경례, 민송순, 이미경, 이유정, 김태열, 백용란, 윤옥희, 안정숙, 유희자, 손만순, 조양선, 장시운, 홍석반, 익명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봉령군대인 김병화(子 김규만) 학선군부인 문태현(妻 홍석하의)
천안유인 전기수(子 김동수) 경주후인 이인우(子 이상철)

개금불사의 공덕을 기리며!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기해년(己亥年) 새해 불천사(佛天師)님의 가호지 원력으로 뜻 하신일 모두 뜻과 같이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봉령각 아미타불상 개금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0일 봉령각 아미타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아미타불상은 수운강생 192년(계사년)에 봉령각 문화재 보수공사로 인하여 법회당으로 잠시 이운하여 모셨다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94년(을미년) 11월 23일 봉령각으로 다시 이운하여 모셨습니다.

그 후 봉령각 아미타 부처님도 새 옷을 입혀드리자는 염원이 있었던 중 지난 10월에 익명의 교인으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위하여 모시한다는 뜻과 함께 칠백만원을 희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뜻있는 많은 분들이 무량수불이시며 무량광불이신 아미타불상 개금불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금번 봉령각 아미타불상 개금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찬탄(讚歎)과 예경(禮敬)공덕(功德)으로 자손만대의 복락(福樂)을 누리시고 오래오래 무병장수(無病長壽)하시길 불천사(佛天師)님께 축원(祝願)드립니다.

수운교 총무원장 김덕환 합장

개금불사 (6,100만원)

▶ 현금회사

- 700만원이상 : 익명
- 300만원이상 : 수산지부(박영숙, 홍윤택, 현병목, 오지홍)
- 100만원이상 : 금필경, 오창인, 박신규, 최현규, 이정문, 차현준, 유희자, 화순지부, 수산지부, 고계희, 청정봉사단, 익명
- 50만원이상 : 김덕명, 이광규, 박기완, 석영일, 이승주, 석월섭, 최현우, 한용순, 황적길, 문충식, 문춘순, 김영호, 김갑선, 김수자, 이상철, 김석보, 박성철, 오금식, 용호회 일동(봉개지부), 고훈혁, 강훈표, 동덕회(수산지부), 서옥선, 강정석
- 30만원이상 : 김덕환, 오창윤, 김미라, 이영남, 권세숙, 김철수, 곽성건, 홍인순, 김희석, 한영무, 송문관, 모창수, 변문호, 황수업, 송정의, 최미숙, 장연수, 광양지부, 대세회(광양지부)
- 20만원이상 : 안상열, 백다영, 김용운, 김종옥, 정이순, 임성수, 강원구, 석국섭, 유정임, 이경주, 문재현, 정인화, 이상연, 금경희, 김순갑, 유은숙, 박영필 오숙향, 고복지, 조선옥, 문매화, 정애영, 김형식, 한종훈, 임서은, 오경주, 김성주, 박정희, 홍순택, 김용남, 임희태, 박복희, 김영대, 일도지부, 익명
- 10만원이상 : 강서조, 김석주, 김부순, 신옥화, 최재봉, 유만준, 박상분, 안소영, 안시현, 이상호, 이임호, 이현숙, 이찬구, 이선, 조대연, 문지현, 조서영, 조민철, 박창희, 최이준, 배시은, 김홍은, 김호수, 김호문, 김호철, 이유정, 김광석, 서현홍, 이장성, 김경애, 김현진, 정기백, 김주영, 김길봉, 조가행, 나은지, 이영주, 김옥현, 문상선, 변동주, 정재용, 김국환, 김은주, 이현수, 이영만, 차마명, 이정순, 석종섭, 정재용, 이현중, 고통완, 고영대, 임응철, 문서운, 신주현, 윤현진, 오춘수, 오광수, 백용관, 김병일, 김금숙, 박종석, 박근목, 김태운, 이상우, 이명우, 이용우, 이태우, 오금식, 이상훈, 김희숙, 문복선, 백미숙, 문영호, 문병호, 정인선, 이덕례, 강유진, 임경주, 임익수, 임계정, 임순생, 부계옥, 양순복, 조태욱, 박정순, 고순자, 강순자, 양복순, 박금자, 강초아, 이지훈, 박창수, 고춘순, 박혜림, 박한열, 김영근, 백수정, 김무진, 박정실, 김봉진, 강정인, 김동연, 강길현, 고순자, 박응보, 강옥순, 양택후, 양택현, 이복순, 고은숙, 양재진, 오승삼, 이덕련, 이옥련, 김재형, 양순정, 김지훈, 김유미
- 5만원 이상 : 김순예, 박형건, 박형오, 김승천, 이규식, 정재동, 김기철, 송규섭, 지재현, 신선례, 이종찬, 양우성, 양원석, 양훈석, 김수길, 김형빈, 김재현, 장민규, 강인숙, 김기복, 김순이, 강춘선, 김미형, 양정임, 강보중, 강우진
- 2만원 이상 : 장시숙, 김병호, 석진성, 최준범

▶ 물품회사 이미경, 이순규

▶ 축하 화환을 보내오신분

- 수운교 신도회 박남형 회장 외 회원 일동
- 금병봉사단 정기백 단장 외 단원 일동
- 백제관광 김길우 대표
- 포머스 제주지사 최진영 대표
- 대성건업 고훈혁 · 한경숙 대표
- 화성전기 박성철 · 전연숙 대표
- 문수회 김옥희 외 회원 일동
- 팔팔 농축산 김수만 · 김옥희 대표
- 청정봉사단 김옥산 단장 외 단원 일동
- 우성유통 김희선 · 박은희 대표
- 나라목장 강훈표 · 강필석 대표